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8월

발행일 : 2025년 7월 31일

KOTRA VIETNAM BUSINESS NEWS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해외시장뉴스	20
✓	<팀코리아협의회동정> 2025 한-베 우호문화의 날 행사 개최	21
✓	<기업탐방> 카스홀딩스	22
✓	<법률> 베트남 신·개정 법률 소개	전현우 변호사 25
✓	<회계>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17탄	엄진용 회계사 28
✓	<통관> 담배 및 시가 수입에 관한 규정	이여람 관세사 31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라이퍼우성>	35
✓	<이달의 보고서> 주요국 對 베트남 진출 현황과 특징 및 시사점	41
	뜨는 품목 뜨는 시장: 산업용 로봇 편	
✓	<이달의 전시회> 2025 베트남 빈증 스마트공장 자동화 산업 전시회	42
✓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43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48



사이버 보안, 베트남 디지털 전환의 핵심 수요로 부상

- 사이버 보안 인프라 강화와 기술 도입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
- 클라우드·MSS 외부 솔루션 수요 증가, 특화 기술 기업 진출 기회 확대

시장 동향

사이버 위협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는 반면, 대응 역량은 미흡한 상황에서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 시장은 정부 주도의 정보보호 정책 강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은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프로그램, 데이터 등을 디지털 공격과 무단 접근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과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이는 기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를 포함해 개인 자산, 산업, 국가 정보 인프라까지 폭넓은 보호대상을 가진다. 이 같은 정의에 기반하여,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 시장은 크게 ‘사이버 솔루션’과 ‘보안 서비스’의 두 분야로 구성된다. 이러한 시장 구조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2025년 베트남 전체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는 약 3억 3,54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사이버 솔루션 부문이 약 2억 2,076만 달러, 보안 서비스 부문이 약 1억 1,469만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베트남 사이버 보안 시장은 연평균 11.10%(CAGR)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9년에는 전체 시장 규모가 약 5억 1,1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사이버 보안 정책

베트남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사이버 정보 보안을 국가 안보 및 디지털 주권의 핵심 영역으로 규정하고, 사이버 보안 인프라 구축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2025년, 2030년, 2050년을 목표 시점으로 하는 단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 시스템의 전면적 도입과 자립형 보안 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다. 2030년까지는 베트남을 아시아 내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국산 보안 기술 개발과 기술 주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반 기술을 활용한 자국산 보안 기술 개발을 통해, 사이버 주권 강화와 정보 보호 체계 고도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베트남은 2018년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하고 2019년부터 시행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테러 등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 조직 모두에 정보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 보안 조건 평가, 정기 점검 및 위협 대응 체계 구축을 의무화했으며, 클라우드·IoT·AI 등 디지털 인프라 전반에 대해 별도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데이터 저장 위치 및 접근 권한에 관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 및 행정 처벌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법 집행력을 높이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보안 강화를 유지하는 한편, 해외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 제도의 균형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보안 기술 트렌드 및 주요기업

AI, IoT, 클라우드 등 신기술의 확산으로 베트남 내 사이버 위협이 더욱 정교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AI 기반 탐지 회피형 악성코드, 딥페이크 사기, IoT 기기 및 블록체인 시스템 해킹,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와 파일리스 멀웨어의 확산으로 방어도 한층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은 제로 트러스트 모델, AI 기반 실시간 위협 탐지, 클라우드 최적화 보안 플랫폼 등 최신 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으며, 비용 효율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사용이 특히 확대되고 있다. 중소·중견 제조업체들도 자체 인프라 대신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도입에 적극 나서는 추세다. 베트남 사이버보안 시장은 IBM, Cisco, Microsoft, AWS, Dell 등 글로벌 기업이 SIEM, AI 탐지, 클라우드 보안 분야에서 강세를 유지하며 대기업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반면, Viettel, FPT, CMC, HPT, Bkav 등 현지 기업들도 침투 테스트, 보안관제(SOC), 컨설팅 등 특화 영역에서 기술력을 확보하며 일부 분야에서는 외산 솔루션을 대체할 수준에 도달했다. 이들은 중소기업 대상의 맞춤형, 비용 효율적 솔루션을 앞세워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의 다층적 경쟁 속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베트남 사이버 보안 시장 내 한국 기업 진출 사례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사이버 보안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의 사이버보안 기업들도 본격적인 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FPT, CMC 등 현지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B2B, 공공 부문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 협력과 서비스 현지화를 통해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보안, EDR/XDR, SOC 운영 등 기술 기반 보안 솔루션과 관리형 보안 서비스(MSS) 등 고도화된 대응 체계를 앞세워 차별화된 경쟁력을 제시하고 있다.

시사점

베트남은 디지털 경제로의 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이버 보안을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인프라 부족, 전문 인력 양성 미비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며, 정부와 민간 모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보안 기업에게는 베트남 시장진출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고도화된 보안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의 기술적·인적 역량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보안, 관리형 보안 서비스 등 외부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즉시 도입 가능한 형태의 제품에 대한 선호도 크다. 한국의 정보보안 기업은 특화 기술을 기반으로 베트남 현지에 실용적인 보안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현지 IT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PoC(기술 검증) 방식의 접근이나 구독형 패키지 등 단계적 확산 모델이 효과적일 수 있다. 베트남 사이버보안 수요는 일시적 유행이 아닌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과 맞닿아 있는 만큼, 진출기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술 신뢰 구축과 시장 변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베트남 철강 산업 정보

- 베트남 철강산업, 정부 주도의 인프라 확장과 친환경 전환 가속화
- 반덤핑 조치 확산·글로벌 공급과잉·탄소 규제 등 대외 변수 확대

베트남의 철강산업 정책 및 규제 방향

베트남 철강산업은 현재 산업무역부(MoIT) 산하 전략정책연구소 주도로 2030년까지의 발전 전략과 2050년 장기 비전 수립을 최종 조율 중이다. 이 전략은 철강 원료의 안정적 조달 체계 확립,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 효율화, 자원 재활용 확대, 탄소중립 실현, 주요 제품군 집중 육성 등 다섯 가지 중점 과제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2030년까지 연평균 5~7%의 성장률 달성, 1인당 철강 소비량 270~280kg, 국내 철강 생산량 4천만~4천5백만 톤 확보가 목표이며, 2050년까지는 생산량을 6천5백만~7천만 톤, 소비량을 360~370kg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 생산시스템 구축, 산업단지 내 전문 클러스터 조성, 첨단기술 기반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또한, 산업무역부는 2024년 6월 14일 한국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Hoa Sen, Nam Kim, Ton Dong A 등 현지 기업들의 청구에 따라 예비조치로서 최대 37.13%(중국), 15.67%(한국)의 관세가 부과됐으며, 이는 120일간 임시 적용된다. 적용 품목은 0.6% 이하 탄소 함유 평판 제품으로, 코일 및 비코일 형식을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산업 보호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베트남 정부는 기존 HRC, 철근, 빌릿에 이어 주요 품목의 세이프가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주요 철강 기업 현황

베트남 철강 시장은 크게 제품군별로 건축용 철강(봉강, 철골), 아연도금강판(냉연강판, 열연강판, 도금강판), 강관 및 튜브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건축용 철강은 주택, 상업시설, 인프라 개발 등 건설 부문 수요에 기반해 베트남 내 철강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연도금강판은 내식성과 내구성이 요구되는 건축 자재, 가전제품, 자동차, 산업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다. 베트남 내수뿐 아니라 수출 비중도 높은 대표 품목으로, 국가 철강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강관 및 튜브는 기계, 건설, 인프라 분야에 필수적인 소재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 흐름 속에서 점진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 기업으로는 Hoa Phat Group (HPG), Formosa Ha Tinh Steel, Nam Kim Steel(NKG), Vietnam Steel Corporation (VNSTEEL), Hoa Sen Group (HSG) 등이 있으며, 이 같은 시장 구조 속에서 베트남 주요 철강 기업들은 제품군별 특화 전략, 공정 기술, 투자 방식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모색 중이다.

철강 시장 주요 이슈 및 동향

①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 2025년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기존 25%에서 50%로 관세를 인상하

인상하고, 냉장고·세탁기 등 철강 소비재 8개 품목도 추가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베트남산 아연도금강판, 냉간도금강, 컬러코팅강에 대해서도 반덤핑 및 CVD 조사를 개시했으며, 4월 예비 판정에서는 최대 88.12%의 고율 관세가 제기됐다. 미국은 베트남 철강 수출의 13%를 차지하는 전략 시장이지만, 2025년 1~4월 대미 수출은 31% 감소, 4월 한 달간은 61% 급감했다. 이로 인해 베트남 철강업계는 대미 수출 전략의 전면적인 재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② 글로벌 보호무역 확대: 미국, EU, 인도, 멕시코, 일부 ASEAN 국가들이 베트남산 철강에 대해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철강 수입 쿼터를 15% 축소하고, 원산지 우회 방지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며, 인도는 베트남산 HRC 등에 최대 30%의 잠정 관세를 부과했다. 멕시코와 태국도 유사한 반덤핑 조사와 규제를 검토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는 베트남 철강 수출에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며, 향후 시장 다변화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③ 탄소중립 압박: 베트남 철강산업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 이후 탄소중립 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부는 202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시범 운영, 2026년 CBAM 대응을 추진 중이다. CBAM은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베트남산 철강 수출에 부담이 예상된다. 철강 수입 쿼터 유지로 EU 시장 진입 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전기로 확대, 고효율 설비,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전환에 나서고 있다.

④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 OECD는 2025년 보고서에서 글로벌 철강산업이 공급과잉과 수익성 악화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향후 생산 능력 증설의 60%가 중국·인도에 집중되고, 수요는 2030년까지 연 0.7% 저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철강 가격은 2021년 대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고, 가동률은 70%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산 저가 철강 확산과 보호무역 강화는 베트남 철강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 수급현황

2024년 베트남 철강산업은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생산과 수출 모두에서 개선세를 보였다. 조강은 2,198만 톤(+14%), 완제품은 2,670만 톤(+13%)을 기록했고, 건축용 철강, 도금강판, 강관은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CRC는 생산은 감소했으나 판매는 증가했으며, HRC는 수출 부진으로 다소 약세를 보였다. 원자재 가격은 강점결탄(-18.7%), 코크스탄(-18.3%), 철광석(-8.7%), HRC(-11.3%) 등 대부분 품목에서 큰 폭 하락했으나, 수요 회복이 제한돼 기업들은 내수 중심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철강 수입은 1,771만 톤(+32.9%), 125.8억 달러(+20.6%)로 증가했으며, 중국산이 67%를 차지했고 한국산은 142만 톤(12.6억 달러, +14.0%)으로 고급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수출은 1,262만 톤, 90.8억 달러로 증가했고, 주요 시장은 ASEAN(333만 톤), EU(285만 톤), 미국(167만 톤) 순이며, 미국 수출은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반면, 한국 수출은 2022년 46.8만 톤에서 2024년 30.3만 톤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시사점 및 진출전략

베트남 철강산업은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건설 경기 회복, 도금강판·냉연강판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EU 등 주요 시장의 고율 관세, 수입 쿼터, 반덤핑 조치, CBAM 도입, 중국발 공급 과잉 등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는 수출 환경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더불어 고로 기반 고 탄소 공정 비중, 친환경 설비 부족, 원자재 가격 변동성 및 수입 의존도 높은 구조는 장기적인 부담 요소다. 반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확대와 친환경 철강 수요 증가, 교통·산업단지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 ASEAN 및 신흥국 수출시장 확대는 베트남 철강산업의 성장 기회로 평가된다.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생산설비 확장 계획은 외국 기업에게도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기업의 경우, 고효율 설비, 환경 대응 기술, 품질 인증 역량을 기반으로 베트남의 친환경 전환과 생산 효율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특히, 산업 클러스터 내 설비 공급, 기술 컨설팅, CBAM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관리 시스템 및 친환경 인증 솔루션 제공에서 협력 기회가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HS코드별 규제 모니터링, 현지 파트너십 강화, 탈탄소형 고부가가치 강재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은 공급·기술·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



Agri Vietnam 2025로 보는 베트남 스마트팜 트렌드

- 디지털 전환 가속하는 베트남 농업, 스마트팜 수요 본격 확대
- AI·자동화농기계, 비료·영양 등 Agri Vietnam 2025서 트렌드 확인

시장동향

베트남은 2024년 기준 농업이 GDP의 11.9%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다. 이로 인해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 가능성 또한 클 수밖에 없으며,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조사' 보고서에서는 베트남을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11개국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 개발과 국제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업의 현대화,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 기후 변화 영향 완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국과의 기후 변화 공동위원회 운영,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등 농업 부문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베트남 농산물 수출은 2018년 58억 6,700만 달러에서 2029년 95억 9,500만 달러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Agri Vietnam 2025로 보는 스마트팜 트렌드

베트남의 농업 현대화 흐름과 더불어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Agri Vietnam 2025가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호치민 SECC에서 개최되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총 120개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국내외 주요 농업·농기계 기업들이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스마트 팜과 지속가능한 농업 관련 솔루션이 다수 소개되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많이 전시된 품목은 다양한 효능을 지닌 비료와 영양제류였다. 수용성 비료, 토양개량제, 영양제 등 기능성 제품들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일부 부스는 자사 제품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전시하거나 시식 이벤트를 진행해 효과를 입증하며 활기를 더했다. AI 기반 선별기, 앱 연동 곡식 건조기, 스마트 농기계 등 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도 함께 전시되어, 베트남 내 스마트농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 스마트팜 시장에 적극 진출 중이다. 어밸브(Avalve)는 빈푹성에서 새싹삼 스마트팜 식물공장 기술이전을 완료하고, AI 기반 딸기 재배 솔루션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수화학(Isu Chemical)은 롱안성에 수직농장을 조성해 한국산 딸기 생산을 준비 중이다. 바이오플랜(Bioplan)은 인삼 기술과 농자재 수출을 위해 현지 기업과 협력하며,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스마트 농업 기술의 최신 동향을 한눈에 살펴보고, 기업 간 협력과 교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다.

2025년 베트남 스마트팜 관련 전시회 일정

2025년 베트남에서는 호치민과 하노이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업 관련 전시회가 다수 개최될 예정이다. 베트남 스마트 농업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전시회를 통해 바이어의 수요를 파악하고 최신 기술 및 농업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베트남 스마트팜 관련 전시회 일정>

지역	행사명	개최 일자	행사 소개
호치민	베트남 농업 기술 박람회 Vietnam Growtech 2025	10월 8~ 10일	농업, 원예, 축산업 및 임업 분야의 제품, 장비 및 기계 특화 전시회
	산업기계및장비전시회 Vinamac Expo 2025	11월 27~29일	농업 기계, 원예 기계를 포함한 산업 기계 및 장비전시회
하노이	산업 기계 및 장비 전시회 Vinamac Expo 2025	11월 27~29일	농업 기계, 원예 기계를 포함한 산업 기계 및 장비 전시회
	베트남 농업 기술 박람회 Vietnam Growtech 2025	12월 10~12일	농업, 원예, 축산업 및 임업 분야의 제품, 장비 및 기계 특화 전시회

[자료: 각 행사 홈페이지,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시사점

베트남 농업 시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팜 전환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AI 기반 자동화 장비, 온실 환경 제어 시스템, 데이터 기반 작물 생육 솔루션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이 실제 현지 기업의 구매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이력 관리, 농기계 자동화, 스마트팜 인증제도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ODA 시범사업과 합작법인 설립 등 외국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 중이다. 한국 기업은 현지 맞춤형 솔루션, 기술 교육, 사후관리 포함 통합형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며, Agri Vietnam과 같은 전시회를 시장 진입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내 스마트팜 시장은 기술 수요와 정책 기반이 함께 형성되고 있는 초기 단계인 만큼, 한국 기업은 협력 기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중장기 전략 아래 시장 내 입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흑연 산업 및 프로젝트 동향

-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윤활제 등 차세대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광물자원
- 풍부한 매장량과 정부의 강력한 수출 장려 정책으로 발전 가능성 높아

베트남 흑연 산업 현황

베트남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윤활제, 금속 제련, 전도성 플라스틱과 같은 제품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흑연(Graphite)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흑연은 천연과 합성 형태로 나뉘며, 정제 수준에 따라 용도가 다양하다. 베트남은 약 500만~1,000만 톤 규모의 천연 흑연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옌바이(Yên Bái) 및 라오까이(Lào Cai) 북부 산악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에는 편상흑연(Flake Graphite)이 풍부하게 분포해 있으며, 일부는 상업적 채굴이 가능할 정도의 품질과 규모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베트남 흑연 산업은 제철 및 내화물용 일반 흑연 중심으로 공급 구조가 형성돼 있으며, 2차전지용 고순도 합성 흑연은 전량 수입 의존 상태다. 현지의 정제 및 가공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로, 고부가가치 소재로의 산업 전환에는 기술 투자와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시장동향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 흑연 수출 가격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마비와 중국의 생산 제한 영향으로 톤당 2,300달러까지 급등했으나,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에너지가격 상승, 중국발 저가 공급 과잉이 겹치며 가격이 톤당 331달러까지 급락했다. 이후 전기차 배터리 수요 확대와 고순도 제품 생산 강화에 힘입어 2023년부터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며, 2024년에는 1,580달러 수준으로 반등했다. 그러나 일본 시장에서는 중국산 저가 흑연전극의 대량 유입으로 가격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 제품에도 고부가가치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같은 기간 베트남의 흑연 수출은 천연과 인조 모두 감소세를 보였으며, 천연 흑연은 연평균 -13.6%, 인조 흑연은 -41.4% 감소했다. 천연 흑연 수출은 중국, 인도, 싱가포르 중심이었으며,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으로 다변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인조 흑연은 기술·환경 기준 변화와 전방 산업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했고, 한국으로의 수출은 사실상 단절 돼가고 있다. 2020-2021년 통계에서 인조 흑연 수출액이 자연 흑연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 베트남이 인조 흑연의 가공 및 재수출 거점으로 일시적으로 활용됐으며 대형 수출 계약이 집중된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인조 흑연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단가가 높아 수출량이 많지 않더라도 전체 수출액 규모가 크게 나타난다. 베트남 흑연 산업의 실질적인 기반은 자연 흑연 채굴과 원광 수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출 흐름은 결국 천연 흑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흑연 산업 발전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제도적 대응 및 수출규제 동향

베트남 정부는 흑연 산업을 전략 광물 분야의 핵심으로 인식하며, 2023년 결정문 866/QĐ-TTG를 통해 2030

년까지 연간 최대 115만 톤의 천연 흑연 채굴과 11만 톤 규모의 고순도 정제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탐사 및 채산성 향상, 심층 가공 기술 투자, 친환경 운영 모델 도입 등을 포함한 통합 산업 모델이 추진되고 있다. 세계 거버넌스 지표(WGI)에 따르면, 베트남은 정치적 안정성은 비교적 높게 평가받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시민 참여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지표들도 30~40 백분위 수준으로 개선 여지가 있다.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서 흑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 신뢰 기반의 자원 공급국으로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회람 제14/2013/TT-BCT호에 따라 흑연을 수출하기 위해 반드시 산업 통상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원광 수출은 금지되고 가공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한 자원만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 기업은 등록증, 품질분석서, 원산지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야 통관이 허용된다.

시사점

베트남의 흑연 생산량은 중국 등 강대국 대비 낮은 수준이나,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하여 향후 산업 발전 잠재력이 높은 상황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향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흑연 채굴 및 고순도 정제 기술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내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 생태계 정비 및 유치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흑연을 단순한 원자재 수출 품목이 아닌, 전기차·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하류 산업과 연계된 전략 광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정책의 일환이다. 한국과 베트남의 제조업 분야 협업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나, 기초 광물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 자원부국의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베트남 정부의 주요 광물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계획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전력 수요 늘어나는 베트남, 장비 수출 및 프로젝트 진출 기회 확대

- 2025년 베트남 전력 수요, 전년 대비 최소 11% 이상 증가
-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에 따라 PDP8 발전 프로젝트 진출 기회 모색 필요

베트남 전력 수급 현황

2025년 상반기 베트남의 총발전량은 약 1,557억9천만 kWh로, 전년 동기 대비 5.49% 증가했다. 발전원 구성은 석탄 54.3%, 수력 23.4%, 재생에너지 13.5%로 나타났으며, 연간 발전량 목표는 약 3,475억 kWh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한 수준이다. 설비용량은 83GW로 전년과 유사하지만, 피크 수요는 약 54.5GW로 전년 대비 11.35%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업무역부와 EVN은 11%, 12~13%, 14~16% 증가를 가정한 세 가지 전력 수급 시나리오를 수립하였다. 정부는 총 8.8GW 규모의 10개 발전 프로젝트를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이는 2023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약 3.6GW 규모의 전력 차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당시 주요 수력댐 저수율 저하로 수력발전 용량이 23.7%까지 하락한 바 있다. 이후 석탄 및 수력 저장 확대, 송전망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베트남 전력산업 관련 제8차 전력개발계획(PDP8) 개정안

베트남의 전력시장 관련, 2025년 4월 15일 정부는 개정된 제8차 전력개발계획, 이른바 PDP 8 revision을 최종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2023년 기준 80.6GW에 해당하는 설비용량을 '2030년 2.9배인 최대 236.4GW까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개편안을 담았다. 일례로 2030년까지 태양광은 25~31%로 확대, 풍력 14~16%, 바이오매스/폐기물/지열 1~2%, 저장장치 5~6% 등의 비중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45% 이상에 이를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전력소비량도 2023년 281 TWh(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최대 557TWh에 이를 것으로 가정했다. 하노이 무역관에서는 PDP8 개정 초안 관련, 아래와 같이 뉴스를 작성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PDP8 개정안에서 전력 공급의 신뢰성 제고, 전력손실 감소를 강조한 바 있으며, 각 발전원 확보와 그리드 투자 확대 및 송전망 개발 등에 1363억 달러 가량의 투자비 집행 계획을 세운 바 있어 관련 기업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PDP8 개정안 내 투자비 집행 계획>

(단위: 십억 USD)

목적/년도	2026~2030	2031~2035	2036~2050
발전원 확보	118.2	114.1	541.2
송전망 개발 및 보강	18.1	15.9	27.9
합 계	136.3	130.0	569.1

[자료: PDP8 개정안 등]

베트남 전기장비 수출입 동향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베트남의 전기장비 수입은 변압기와 정전식 전력변환장치가 주도하며 2024년 43억 9천만 달러로 정점을 기록했다. 전선·케이블 수입도 증가세를 보였고, 배전·제어반 수입은 2배 이상 확대되었다. 전동기·발전기는 2023년 하락 이후 반등했으며, 차단기·서지 보호기·스위치류는 국내 생산 강세로 수입 변화가 거의 없었다. 중국은 주요 공급국으로, 전선·케이블 65%, 변압기·변환장치 55%, 배전·제어반 45%를 공급하고 있다. 일부 품목은 베트남 국내 생산 비중도 높으며, 한국과 일본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같은 기간 수출은 변압기·전력변환장치, 전선·케이블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 확대와 함께 베트남이 제조 허브로 부상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ABB(스위스)는 2022년 박닌성에 전력 분배 솔루션 제조 센터를 설립했고, LS일렉트릭(한국)도 박닌성에 생산 거점을 이전한 후 사업장을 증설했다.

베트남 전력 시장 전기 발전 부문 경쟁 구도

2024년 기준, 베트남의 전력 생산은 국영기업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베트남전력공사(EVN) 및 그 자회사는 2024년 전체 전력 생산량의 37%를 차지하며, PetroVietnam Power(PVN)와 Vinacomin(TKV)은 각각 8%, 2%의 비중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 발전 사업자는 전체의 42%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발전소를 건설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 뒤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10%를 담당하고 있으며,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의 기업이 주요 투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들과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며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베트남 국내 기업으로는 GELEX 그룹이 대표적이며, 전선(CADIVI), 변압기(THIBIDI), 계측기기(EMIC) 등 다양한 분야의 자회사를 통해 베트남 시장 내 상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으로는 ABB(스위스), 슈나이더 일렉트릭(프랑스), LS일렉트릭(한국) 등이 있으며, 이들은 베트남 현지 생산시설을 두고 전기장비 제조 및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시사점과 진출전략

베트남은 전력 개발 계획(PDP8) 시행과 함께 전력수요 증가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전기장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1~2030년 송전망 프로젝트에 149억 달러가 배정되었고, 220kV 이하 송전선 민영화, 지방정부의 투자 승인 권한 분산 등 제도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다. LS일렉트릭 베트남 법인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택·산업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변전소 업그레이드, DAS 구축, 유연 송전 기술(HVDC, SVC, STATCOM)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30년까지 전력수요는 연평균 10.3~1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화, 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대응 기술 등은 유망 분야로 평가된다. 현지 기업과의 기술 협력은 시장 접근 전략으로 활용 가능하다. 한편, 전기장비 제조업이 성장 중임에도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높아, 변압기 수입은 43.9억 달러에 이르고 중국 점유율은 50%를 초과한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현지 생산 및 합작투자 확대 여지가 있으며, FTA 네트워크를 통한 아세안 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되어 있다. 한국은 과거 발전소 개발 및 EPC 경험을 바탕으로 PDP8 내 LNG·BESS 프로젝트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



베트남 종이(paper) 시장 동향

- 베트남 제지산업, 인쇄·포장용 고급지 중심으로 연 10% 이상 성장세
- 한국산 종이, 품질과 가격 경쟁력 기반 포장재 등 공급망 강화 필요

시장동향

시장조사기관 Statista에 따르면, 베트남의 펄프 및 종이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8년 158만 달러에서 2024년에는 271만 달러로 확대되었다. 특히 포장재 수요 증가 등 산업 전반의 수요 확대로 인해 제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2024년 기준, 베트남의 1인당 종이 소비량은 약 44kg이며, 내수 및 수출용 포장지 수요는 매년 8~10%, 포장지 단독 수요는 약 1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연평균 약 3.31%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전망되며, 종이 생산 매출도 2019년 34억8천만 달러에서 2024년 5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와 소득 증가에 따른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택배 수요 확대와 함께 포장재, 골판지, 라벨용지 등 산업용 종이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친환경 및 위생 관련 트렌드 확산으로 인해 식품 포장용 종이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 종이 수입 시장에서는 중국(33.7%), 인도네시아(12.4%), 한국(12.2%), 일본(11%) 순으로 주요 공급국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이 고품질 종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고급 인쇄·필기용 종이의 경우, 2024년 기준 한국산 수입액은 약 169만 달러로 전체의 22.7%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독일(16.2%), 오스트리아(15.4%), 이탈리아(12.1%), 중국(10.1%)이 뒤를 잇고 있으며, 상위 5개국이 전체 수입의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고급지 시장이 한국 및 유럽산 제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경쟁 동향

베트남의 주요 종이 및 종이제품 기업으로는 골든페이퍼(Golden Paper)와 안호아페이퍼(Anhoa Paer)가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은 인쇄용지 및 산업용 포장지 등을 중심으로 베트남 내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친환경·재활용 기반 포장재 생산에도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인 대명화학과 한솔제지는 고급 인쇄용지, 코팅지, 산업용 특수용지 분야에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베트남 시장 내 프리미엄 수입지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유통구조

베트남제지협회(VPPA)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는 외투기업을 포함해 500개가 넘는 제지 기업이 있으며, 유통망은 크게 도매용(B2B)과 소매용(B2C)으로 구분된다. B2B 유통은 제조사에서 대형 유통업체나 전문 유통사를 통해 포장 산업, 인쇄소 등에 공급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주요 제지 기업들은 전국에 대리점과 구매·유통 담당자를 두고, 베트남 내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기반 납품을 진행한다. B2C 유통은 슈퍼마켓, 대형 체인점 외에도 쇼피(Shopee), 티키(Tiki), 라자다(Lazada)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관세율 및 관련 규제

해당 인쇄·필기용 종이 및 판지 제품의 일반 수입세율은 5%이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AKFTA)’나 ‘한-베트남 FTA(VKFTA)’를 활용할 경우, 해당 제품이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관세율 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반세율 대비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종이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품질검사나 인증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베트남으로 수출 시에는 베트남 내 수입 신고서, 원산지 증명서, 송장, 포장 명세서 등 기본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필요 시 관세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이뤄질 수 있다. 종이 관련 법령으로 현재 2020년 환경보호법과 시행령 제08/2022/ND-CP의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폐지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지 제품은 수입량에 따라 총액의 15~20%를 예치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베트남 제지협회(VPPA)는 이 비율을 5%로 낮출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종이류 생산 및 수입에 대해 지속가능성 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 기업은 환경 관련 표준, 재활용 관리 이력 등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베트남 제지 시장은 산업 발달과 함께 인쇄·포장용 고급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고급 인쇄용 종이 분야에서 한국산 제지는 베트남 종이 수입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한국산 종이가 베트남에서 신뢰성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유럽산 제품과 견줄 수 있는 품질을 유지하고, 가격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기업은 고급 인쇄지와 코팅지 등 강점을 지닌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유통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며,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확대해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트남 내 포장재 수요는 전자상거래와 택배 산업의 급성장으로 매년 약 15%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한국산 종이는 이미 고급 인쇄지 시장에서 품질과 신뢰를 인정받고 있어, 이러한 강점을 포장재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를 위해 현지 맞춤형 포장재 공급망을 구축하고 주요 대리점 및 기업 고객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체 종이 시장에서 한국산 종이의 입지와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확대할 수 있으며, 프리미엄 이미지를 다양한 제지 분야로 확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 커피 가격 일주일 새 14% 급락, 글로벌 공급 증가 영향

2025년 6월 셋째 주, 베트남 커피 가격은 톤당 3,737달러, 국내는 96,000동/kg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함. 브라질·인도네시아의 공급 확대와 달러 강세로 수요가 위축되었으며, 수확량 증가로 단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음. 한편, 상반기 수출은 단가 63% 상승에 힘입어 47억 달러를 기록하며 호조를 보임.

[Vnexpress.net 6.23]

▶ 2025 FIATA 세계물류총회 하노이 개최 확정, 150개국 1,200명 참가 예정

오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베트남에서 개최 예정인 FIATA 총회에서는 녹색물류,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물류 현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 베트남 총리가 FIATA 회장과 직접 면담하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베트남의 아시아 물류허브 도약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됨.

[Vietnam Plus 6.25]

▶ FPT, 세계 슈퍼컴퓨터 TOP500 진입으로 AI 강국 15위 등극

FPT의 AI 팩토리 2곳이 2025년 6월 발표된 TOP500 순위에서 각각 36위와 38위를 차지했음. 일본과 베트남에 위치한 이 시설은 글로벌 AI 기업들과 협력 중이며, FPT는 향후 5년 안에 3개 공장 구축을 목표로 AI 인프라 선도국 도약을 추진.

[Vietnam Economy 6.26]

▶ 해상풍력 1,000GW 잠재력 보유, 친환경 미래 에너지 본격화

베트남 정부는 2030~2035년까지 해상풍력 17GW, 2050년까지 139GW 개발을 목표로 설정함. EEZ 30만km² 이상의 경제수역과 평균 풍속 500W/m²의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유망 해역 14곳을 제시한 바 있음. 산업화를 위해 해양 데이터 확보, 정밀 조사, 제도 정비 및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며, 이는 COP26 탄소중립 이행과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기대됨.

[Vietnam Net 6.29]

▶ 글로벌 불확실성 속 안정적 성장 지속, 개혁과 민간 부문이 핵심

2025년 1분기 베트남 GDP는 전년 동기 대비 6.93% 성장했으며, IMF와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다만, 미중 무역 긴장 및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과 같은 외부 변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제도 개혁이 필요한 상황. 공공투자 확대, 환율의 유연성 강화, 민간 부문의 혁신 및 수출시장 다변화가 중장기 성장의 주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2025년 연간 GDP는 6% 성장이 전망되며,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베트남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Vietnam Plus 6.30]

▶ 과학·기술·디지털산업 수입품 면세 시행

베트남 정부는 정부령 182/2025/ND-CP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산업 발전을 위한 수입품에 대해 2025년 7월 1일부터 수입세 면제를 시행. 면세 대상과 절차는 개정된 수출입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부의 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될 예정.

[Vietnam Economy 7.2]

▶ 상반기 GDP 7.52% 성장, 2011년 이후 최고치

2025년 상반기 베트남 경제는 산업·건설(8.33%)과 서비스업(8.14%)이 성장을 주도해 전체 성장의 94%를 차지했고, 제조업(10.11%), 건설업(9.62%), 숙박·음식업(10.46%) 등 주요 업종도 호조를 보임. 농림어업은 3.84% 성장해 수출과 내수 수요 모두에 안정적으로 대응함.

[Vietnam Plus 7.5]

▶ 2025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액 33% 증가

2025년 1~5월 해외 투자 3억1,7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0% 증가함. 신규 투자 46건, 2억7,570만 달러로 170% 급증, 라오스가 최대 수혜국이며 투자 비중은 전력·가스(35%), 제조(22.7%), 운송·물류(15.9%) 순임.

[Vietnam News 7.5]

▶ 2025년 2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 3.31% 상승

베트남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2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3.31% 상승했으며, 6월 CPI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57% 증가. 식품 및 외식, 전력·건축자재, 보건·의약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으며, 전력요금과 보건료 인상, 금·달러 가격 변동, 계절적 소비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Vietnam News 7.5]

▶ 2025년 상반기 산업생산지수(IIP) 9.2% 기록

2025년 상반기 베트남의 산업생산지수(IIP)는 전년 대비 9.2% 증가하며 최근 5년래 최고치를 기록. 특히 제조업 부문이 11.1% 증가해 전체 상승분 중 9.1%포인트를 기여. 2025년 6월 기준 IIP는 전년 동월 대비 8.8% 상승했으며, 이 중 제조업은 10.3% 증가. 광업 부문은 감소했지만 전력 및 수도 등 기타 부문이 함께 상승하며 전체 산업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Vietnam Economy 7.6]

▶ 상반기 외국인 투자 215억 달러 유치, 전년 대비 32.6% 증가

2025년 6월 말 기준, 베트남의 총 등록 외국인투자액은 215.2억 달러 기록. 이 중 신규등록 92.9억 달러, 증액 89.5억 달러, 지분 인수 32.8억 달러.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24.1억 달러로 최대 투자국이며, 전체 신규등록의 25.9% 차지.

[Vietnam Plus 7.9]

▶ 호찌민시 메트로 2호선, 독일 ODA 차관 중단 및 국내 자금 전환

팜민찐 총리가 독일 KfW와의 2건 차관 계약 해지를 승인하며, 국내 자금으로 전환 결정. 오랜 절차 지연과 낮은 집행률로 인해 외국 자본을 포기하고, 시 재정 및 민간 투자 방안 검토 중. 사업은 2025년 착공, 2030년 운영 목표로 추진되며, 1단계 총연장 11.3km에서 향후 48km로 확대 예정.

[Vietnam Plus 7.10]

▶ 박닌성, 상반기 FDI 유치 전국 2위 기록

2025년 상반기 박닌성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며 총 120.4억 달러를 기록. 이 중 신규 프로젝트 186건(9.4억 달러), 기존 프로젝트 증액 141건(24.3억 달러)로 집계. 전자부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산업생산은 156.3조 VND 규모로 성장. 산업단지 개발, 행정개혁, 투자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방정부의 제도적 노력 지속.

[Vietnam Plus 7.14]

▶ 떠이닌성, 첨단 농업 중심 개발사업 다수 승인

떠이닌성, 수이쩌이·난지엔 등지에 총 847ha 규모의 고기능 농업 프로젝트 승인.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돼지·오리 사육을 위한 스마트 축산시설 등 고부가가치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구성. 또한 교육단지, 골프장 등 일부 비농업 사업도 포함되었으며, 일정 미준수 시 승인을 철회하겠다는 방침도 명시.

[the investor 7.14]

▶ 2025년 상반기 섬유·의류 수출액 220억 달러 기록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은 2025년 상반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약 220억 달러 기록. 미국향 수출 87.7억 달러(17.1% ↑), EU향 23.6억 달러(14.8% ↑), 일본향 22.4억 달러(12.4% ↑) 등 주요 시장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

[Nhan Dan 7.15]

▶ 2025 상반기 북유럽 FDI 급증, 스웨덴 3위 투자국 부상

스웨덴이 총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로 10.8%의 비중을 차지하며 2025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국 중 3위 기록. 정치적 안정성과 인프라 강점을 바탕으로 북유럽 국가들의 베트남 투자 확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 중심으로 총 215억 달러 유치되며 전년 대비 32.6% 증가. 덴마크 또한 풍력 및 친환경 분야에서 투자를 확대하며, ESG 기반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반영.

[Vietnam Economy 7.16]

▶ 하반기 신용환경 안정 전망, 인프라·부동산 수혜

무디스 계열사인 베트남투자서비스(VIS)는 정부의 재정 확대 및 제도 개혁 기조에 힘입어 베트남의 전반적인 신용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공공투자 확대에 따라 인프라·건설 부문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행정절차 간소화로 부동산 및 에너지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항만, 산업단지 등은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해 단기적 압박 지속. 금융 부문에서는 은행의 건전성 개선, 증권사의 저레버리지 기반 안정성은 긍정적이나, 전체 금융권의 유동성 리스크는 여전히 지속.

[Vietnam Plus 7.17]

▶ EVNNPT, 북부 전력망 4개 사업 조기 완공 촉구

EVNNPT가 푸토성 내 4개 송전 프로젝트 현장을 점검하며 공정 지연 문제를 지적. 500kV 빈옌 변전소는 7월 20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나, 일부 구간의 이설·보상 문제로 인해 진행 난항. 500kV 비엠티 변전소 증설, 220kV 바티엔 및 응이아로 노선 등도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일정 차질 발생. 해당 사업들은 수력 전력 수송 및 북부 지역 전력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강조.

[[the investor 7.17]

▶ 박닌성, 삼성 베트남의 사업 확대 전폭 지원

삼성전자는 2008년 이후 박닌성에 디스플레이, 전자, SDI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규모 투자 지속.전체 공급업체의 약 70%가 박닌에 위치해 있으며, 지역 내 생산활동에 최적의 환경 제공.이에 따라 박닌성은 기술이전, 인재양성, 사회공헌 강화뿐만 아니라 랜드마크 건설 제안도 함께 추진.삼성전자는 2025년 도전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기대 표명.

[Vietnam Plus 7.22]

▶ ‘Mega Us Expo 2025’, 8월 14일~16일 호치민시 개최

‘Mega Us Expo 2025’가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호치민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번 행사는 혁신 및 스타트업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식품, 화장품, 기술, 콘텐츠 등 5대 유망 분야에 집중.한-베 양국의 200개 기업 및 스타트업이 참여해 2,000건 이상의 B2B 매칭이 예정되어 있으며, 기술 상용화, 기술 이전, 청년 창업 활성화 및 공급망 국제화도 함께 추진.2030년까지 교역 1,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양국 간 혁신 생태계의 공동 발전 기대.

[Vietnam Plus 7.23]

▶ 상반기 8만 개 이상 온라인 쇼핑몰 주문 '0'건

2025년 상반기 기준 8만 개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이 발생하지 않으며,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의 양극화 심화. Shopee가 58%의 점유율로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TikTok Shop은 매출이 69% 급증하며 점유율 39% 기록.Shopee와 TikTok Shop 내 브랜드 공식 몰(Mall) 샵이 전체 매출의 28.7%를 차지하며 소비자 신뢰 확보. 10만~35만동대의 저가 제품 매출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고가 제품 수요는 위축세.

[the investor 7.28]

▶ 정부, 부품·소재 산업 육성 위한 신규 정책 발표

베트남 정부는 기술, 인력, 토지, 행정절차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전략을 추진 중.현재 베트남에는 약 5천 개의 지원산업 기업이 존재하지만, 이 중 1차 공급업체는 100여 개에 불과한 상황.기술력 부족과 자본난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FDI 기업과의 연계는 여전히 미흡하며, 고부가가치 부품 생산 역량에도 한계 존재.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최대 70%를 지원하고, 기술이전 및 인력양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를 기대.

[Vietnam Plus 7.29]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Dam Nai 4 Wind Power Plant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

2. 프로젝트 세부정보

발주처	Ninh Thuan People's Committee
프로젝트	- 현장위치 : Thuan Bac and Ninh Hai Dist., Khanh Hoa Province, Vietnam - 프로젝트 진행상황: Pre-Feasibility Study - 프로젝트 내용: ➤ Land area: 9.8 ha ➤ Installed capacity: 27.6 MW ➤ Wind speed in 80m: 6.8-7.2 m/s ➤ Turbine number: 11-12 turbines (2.6 MW/turbine) ➤ Power generation capacity: 80-92 million kWh/year ➤ Project Background: The project belongs to the Power Plan VIII, in accordance with the Provincial Plan and has been included in the List of land plots for bidding to select investors to implement investment projects using land in Ninh Thuan province [approved by the Provincial People's Council in Resolution No. 65, dated December 10, 2024] ➤ This project can help reducing about 72.250 tons Co2/year. - 세부일정: ➤ 2023-2025: Preparation for investment ➤ Q3/2025: Bidding for investment selection ➤ Q4/2025: Construction ➤ Q4/2026: COD

▶ 한-미 무역협정 타결 주요 내용(1차)

◇ 韓-美 무역협정 타결 주요 내용(1차)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27)] 백악관 에너지산업 정책보고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에너지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보고서 발표

◇ 행정명령 기반 에너지산업 활성화 및 규제 철폐 중심의 에너지정책 기조 강화

◇ LNG 수출 확대 및 조선업 활성화 등 에너지·통상 분야 핵심 정책 주목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26)] CSIS 중국의 갈륨 수출 통제 및 글로벌 공급망 영향 분석

◇ 중국, '23년 7월 이후 미국 및 동맹국 대상 갈륨 수출통제 조치 단계적 강화

◇ 글로벌 시장 가격 급등, 주요국 대상 수출 지연·거절 사례 발생

◇ 미국, 동맹국과의 공급망 재편 및 기술 내재화 등 대응 전략 추진 중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 경제통상리포트(US25-25)] 美 최초 암호화폐 법안(Genius Ac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미국 결재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포괄적인 연방 프레임워크 수립을 위한 최초 법안

◇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고,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강화로 국가안보 강화

◇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마련으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선도 전망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美-EU 무역협정 타결 관련 주요 내용 (한국시각 7.29. 기준)

◇ 미 백악관 팩트시트(7.28)가 발표됨에 따라 품목관세 내용 추가

◇ EU 공동성명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2025 한-베 우호문화의 날 행사 개최

한-베 문화 교류 통한 우호 증진... '2025 한-베 우호문화의 날', 26~27일 호찌민시서 개최



출처: 2025 한-베 우호문화의 날 포스터. 주베트남한국문화원

주베트남한국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은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 세종학당재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호찌민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호치민 인민위원회 청사 앞 레러이 거리에서 '2025 한-베 우호문화의 날'을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한-베 우호문화의 날'은 지난해 2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3일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올해 '2025 한-베 우호문화의 날' 행사에는 CJ ENM, CGV, 카카오프렌즈, 두근두근 등 베트남에 진출한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영화, K-뷰티, 캐릭터 등 한류 콘텐츠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한국문화원은 aT와 함께 대상, 빙그레, 오투기, 오리온, 삼립, 오토칩 등 베트남에 진출한 주요 K-푸드 기업들과 협력, 다양한 한국 식품을 소개하는 홍보존을 운영할 예정이다. 양일간 이어지는 공연 행사에서는 △V-팝 아티스트들의 특별 무대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 공연 △한-베 전통예술 무대 △K-POP 커버댄스 △DJ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승진 한국문화원장은 "문화를 통해 한-베 양국의 우호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예술 교류 공연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문화원은 호치민을 비롯해 베트남 전역에서 문화를 매개로 양국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2025.7.23.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스홀딩스, 30년 업력 기반 베트남서 건설·F&B·교육·항공 다각화 사업 전개, 글로벌 네트워크 비전 가속

장순봉 회장

1. 카스홀딩스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카스 홀딩스 (KAS HOLDINGS)는 1994년에 설립된 종합 투자·운영 기업으로, 종합건설업, 종합설계업, 제조, 개발, IT, 교육, F&B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진출해 왔습니다. 30년 이상의 건설 및 인프라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 투자와 각 지역에 맞춘 운영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법인 및 자회사를 설립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진설명: 카스홀딩스(KAS HOLDINGS)는 베트남 닌투언성 투안남현에 위치한 BIM 1,2,3,4 태양광발전소를 EPC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해당시설은 2019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총 200MW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이다. KAS홀딩스 제공]

2.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카스 홀딩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건설 및 설계 부문에서는 산업시설, 플랜트, 상업·주거시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설계 및 시공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렌터카 및 모빌리티 사업은 Carvia 브랜드를 통해 운영 중이며 ASEAN 지역으로의 모빌리티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에서는

더 샘 에듀케이션내에 세종학당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F&B 및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는 인삼 쌀국수 브랜드를 출시하여 베트남을 포함한 5개국에서 점포를 확대 중이며, '짜 페' 브랜드를 통해 K-디저트의 세계화를 목표로 7개국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및 해외 지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 사업 진출을 준비 중으로, 향후 항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팬퍼시픽 지역을 연결하는 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베트남 사업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베트남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라고 생각합니다.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 역시 매우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베트남은 남북을 연결하는 물류 허브로서의 지리적 장점을 갖추고 있고, 도시 인프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사업 확장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베트남은 단순한 내수 시장을 넘어 아시아 전체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베트남에서의 사업 추진 과정에는 내부적인 도전과 외부적인 위기 상황이 모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나 지역별 제도의 차이 등이 그 예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전문가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법률 자문과 정부와의 신뢰 구축이 중요합니다. 외부적으로는 IMF, 9·11 테러, 사스, 메르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코로나 팬데믹, 미얀마 군부 쿠데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별 리스크를 분석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통해 지난 32년간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해 왔습니다.



5. 향후 계획하고 계신 신사업이 있으신가요?

네. 현재 F&B 부문에서는 베트남과 아세안 시장을 기반으로, 뉴욕,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지로의 글로벌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 10년간 축적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자체 웹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또한, 향후 30년을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 항공 사업에 참여하고 렌터카 운영을 집중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6. 베트남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에게 조언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지요?

베트남 시장에서의 성공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에서 출발합니다. 한국의 방식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베트남의 문화·속도·관행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지 파트너와의 신뢰 구축, 장기적 관계 형성, 법적·행정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꾸준한 아이템 개발과 진정성 있는 접근, 그리고 인근 국가로의 시장 확장 전략까지 포함하여 베트남을 하나의 거점이자 브릿지로 삼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는 25세에 맨주먹으로 창업하여 지금까지 사업을 지속해온 기업인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베트남은 여러분의 기회를 성공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갖춰진 나라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 하십시오.



베트남 신·개정 법률 소개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들어가며

지난 최근 베트남 정부는 전격적으로 많은 수의 법률개정을 단행하였고, 7월1일부터 해당 법률이 곧바로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은 28개의 법률, 49개의 시행령 그리고 112개의 시행규칙을 포함하는 큰 변화이며 본 칼럼에서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안 내용

가. 지방 행정 체계 개편: 2단계 지방 정부 모델 시행

이번 7월 1일부터 34개의 새로운 성 및 시와 3,321개의 동, 특별구의 행정 기구가 공식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이전 696개의 지구급 행정 단위(지구, 현, 성급 시, 중앙 직할시 산하 도시, 읍)는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성이 합병되어 하나의 성으로 개편되는 등 행정구역 관할의 변동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더불어 2025년 지방 정부 조직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행정 단위는 다음을 포함한 2단계로 조직됩니다:

- 성 및 중앙 직할시 (이하 '성급')
- 성급 산하 동(Ward-phuong), 리(Commune-phuong), 특별구 (이하 '동급')

하노이, 호치민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구”급 행정구역이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 하노이의 Hoankiem District, Ba Dinh District가 모두 폐지되었으며, 호치민시의 경우 District 1, 2와 같은 1군 2군 등 구급 행정구역이 폐지되었습니다.

나. 개인 식별 번호로 세금 코드 대체

2025년 7월 1일부터 2019년 세금 행정법 제35조 제7항의 규정과 세금 등록에 관한 회람 86/2024/TT-BTC에 따라 세무 당국은 개인, 가구, 사업자 가구의 세금 코드를 개인 식별 번호로 공식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합니다.

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VAT 8%로 공식 인하

204/2025/QH15는 부가가치세율을 2% 인하(8%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명시된 상품 및 서비스 그룹에 적용됩니다. 단, 다음 상품 및 서비스 그룹은 제외됩니다: 통신, 금융 활동,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사업, 금속 제품, 광업 제품(석탄 제외), 특별 소비세 부과 대상 상품 및 서비스 (휘발유 제외). 이러한 VAT 인하 적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2025년 6월 30일, 정부는 국회의 2025년 6월 17일자 결의안 204/2025/QH15에 따른 부가가치세 인하 정책을



규정하는 시행령 174/2025/ND-CP를 발표했으며,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라. 2천만 동 미만의 상품 및 서비스도 세액 공제를 위해 비현금 지급 증빙 필수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b)호에 따르면,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송장 또는 수입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납부 증빙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정부가 규정한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비현금 지급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비현금 지급 증빙에 관한 규정이 2천만 동 미만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부가가치세법, 2013년 개정).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는 2천만 동 미만의 상품 및 서비스도 세액 공제를 비현금 증빙이 요구됩니다.

마. 최소 15년 이상 사회 보험 납부 시 연금 수령 가능

상표권 심사가 통과되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하는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4년 사회 보험법은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법 제169조 제2항에 규정된 정년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 노동법 제169조 제3항에 규정된 정년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이 발행한 힘들고, 유독하며, 위험하거나 특히 힘들고, 유독하며, 위험한 직업 또는 직무 목록에 있는 직업 또는 직무에서 근무했거나,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 수당 계수가 0.7 이상인 지역을 포함하여 특히 어려운 사회-경제적 조건의 지역에서 근무한 경우,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이 총 15년 이상인 경우.
- 노동법 제169조 제2항에 명시된 연령보다 최소 10세 어리고, 정부가 규정한 지하 탄광에서 최소 1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업무 수행 중 산업 재해로 HIV/AIDS에 감염된 사람.

바. 75세 이상 사회 연금 혜택 수령 가능

상표권 심사가 통과되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하는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4년 사회 보험법은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21조는 베트남 시민이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사회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 (i) 75세 이상
- (ii) 정부가 규정한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 월별 연금 또는 사회 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 (iii) 사회 연금 혜택 수령을 위한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빈곤 또는 준빈곤 가구에 속하는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베트남 시민은 (ii) 및 (iii)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회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각 기간의 사회-경제 발전 조건 및 국가 예산 능력에 따라 정부의 제안을 기반으로 사회 연금 혜택 수령 연령을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사. 동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토지사용권 발급 권한 보유

2025년 6월 12일자 시행령 151/2025/ND-CP는 토지 분야에서 2단계 지방 당국의 권한 구분, 분권화 및 분산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시행령 151/2025/ND-CP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구 인민위원회 및 지구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으며, 2024년 토지법의 규정에 따라 동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이전됩니다:

- 2024년 토지법 제136조 제1항 (b)호 및 제142조 제2항 (d)호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 발급.

또한,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재산의 최초 등록 절차 수행 시간은 영업일 기준 17일 이내입니다.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의 최초 발급 시간은 영업일 기준 03일 이내입니다 (이전보다 03일 단축).

아. 8개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

2025년 6월 25일, 국회는 2025년 형법 개정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8개 범죄에 대한 사형이 폐지되었습니다.

- 인민 정부 전복을 목표로 하는 활동 범죄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물질적 및 기술적 시설을 파괴하는 범죄
- 위조 의약품 및 질병 예방 약품 제조 및 거래 범죄
- 평화 파괴, 침략 전쟁 수행 범죄
- 간첩 행위
- 마약 불법 운송 범죄
- 횡령 범죄
- 뇌물 수수 범죄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17탄

동아회계법인 엄진용 회계사

들어가는말

안녕하십니까?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엄 진용 회계사입니다. 본 원고를 준비하는 7월 9일 현재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협정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협상을 진행중입니다. 부디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과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호에서 한국내 급여소득 등에 대한 베트남내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과세관련 사항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상의 내용을 다루기로 하였습니다만, 금번 7월 중요한 세법 내용들이 개정, 발효되어 당분간 그 주요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w on Corporate Income Tax: 새로운 베트남 법인세법에 대한 주요사항

2025년 6월 14일, 베트남 국회는 법인세법("Corporate Income Tax") Law No. 67/2025/QH15를 제정,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법인세법은 폐지되며 상기 동 법인세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어 2025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즉, 기존 법인세법 No. 14/2008/QH12 및 일부 개정 법인세법 Law No. 32/2013/QH13, Law No.71/2014/QH13, Law No. 61/2020/QH14, Law No.12/2022/QH15 및 Law No. 15/2023/QH15는 2025년 10월 1일부로 효력을 정지하고 폐지됩니다.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사업 등을 영위하는 해외 공급업체(e-commerce and digital technology(or platform)-based businesses)는 베트남 법인세 납세대상이 되며 아울러, 고정사업장(PE)은 기존의 구분기준에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e-commerce and digital technology(or platform-based businesses)를 포함함(즉, 베트남내 고정사업장의 존재유무와 상관없음).
- 연간 총수입이 500억 VND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새로운 법인세 제도가 도입됨. 즉, 표준법인세율은 20%로 동일하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2개 단계의 법인세 구간을 추가, 신설함. 보다 구체적으로 연간 총 매출이 30억동 이하인 경우 법인세율은 15%가 적용되며, 연간 총 매출이 30억동 초과 500억동 미만인 경우 17%임. 연간 총 매출액을 정하는 기준은 전년도 과세연도 기준이며, 신설법인인 경우 추후 상세기준이 제시될 예정임.
- 법인세 인센티브 변경 사항으로서 산업단지(Industrial Park), 하이테크 공단(High-Tech Industry), 산업특구(Industrial Cluster) 또는 경제특구(Economic Zone)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즉, 입주사가 위치한 공단의 특성 및 성격에 따른 법인세 인센티브를 의미함)’이 폐지되며, 업종별 및 지역별 조건으로 전환됨. ①업종별 조건은 동 법에서 사이버 보안 제품 및 서비스, 핵심 디지털 기술 제품 및 서비스, 디지털 기술 산업 법률에 따른 전자 기기 생산, 반도체 칩 제품의 연구 개발, 설계, 제조, 패키징 및 테스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 자동차 제조/조립 등으로 제시하였으며, ②지역별 조건은 국가에서 정하는 낙후지역 또는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운 지역으로 제시하였음.

- 비상장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에 출자한 외국 법인주주가 주식 또는 자본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각 대금에 대한 간주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함. 이는 마치 ‘현행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양수도시 매도금액(즉, 매매 금액)에 2%를 양도세로 부과’하는 ‘거래세’의 방식으로 도입됨. 단,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시 적용될 간주 세율은 현재 미정임.
- 탄소배출권과 같은 배출권(Emission reduction certificates)의 양수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탄소배출권이 부여된 이후 동 탄소배출권(Carbon credits)을 양수도 하는 경우에 발생한 첫 번째 양도소득(The first transfer of carbon credits) 및 녹색채권(기후환경채권, Green bond)에서 발생한 첫 번째 양도소득(Income from the first transfer of green bonds) 및 이자소득은 비과세 대상임.



- 2008년 하이테크법에 따른 하이테크 기업 및 하이테크 농기업, 2013년 과학,기술에 관한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업, 2017년도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시설지원을 위한 투자를 한 경우, 중소기업 인큐베이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유오피스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을 하는 기업 그리고 2016년 언론법에 따른 언론사 등에 대해 법인세 인센티브를 부여함.
- 현금 지출시 공제 가능한 비용의 기준이 변경됨. 기존2천만동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 지급방식으로 지출하는 경우 적격증빙(E-Invoice)을 갖추었더라도 이를 세무상 비용(손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 즉, 부가세 포함한 매입가액 기준으로 2천만동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현금 지급방식(즉, 법인 카드 또는 은행계좌이체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만 이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였음. 이 규정에서 금액의 기준을 기존 2천만동에서 5백만동으로 낮춤.

총평

금번 법인세의 신설, 개정은 기존에 업종, 지역 구분없이 무분별하게 베트남에만 일단 투자하면 부여하는 법인세 혜택을 없애거나 줄이는 대신, 하이테크에 관한 기술기업(특히, 반도체 및 자동차쪽 업종에 속한)에 집중하려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아울러, 하노이 및 호치민과 같은 대도시 인근의 공단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의 불균형한 발전속도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아울러, 과거에는 규정화되어 있지 않아서 중구난방식으로 행정처리 및 과세가 이루어지던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과세여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을 집중 육성하려는 지원책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동안 수십년간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전략적 위치 그리고 법인세 인센티브와 같은 장점을 내세워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거대 생산기지로서 자리매김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섬유, 봉제, 신발, 전자전기, 자동차부품 등 그 어느 업종도 가리지 않고 투자유치를 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기술위주의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하려는 경향이 보입니다.



2025년 베트남 정부가 연초부터 적지 않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금번 법인세법 개정, 발효가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낼 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맺음말

다음호에서는 이번호에 이어서 한국내 급여소득 등에 대한 베트남내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과세관련 사항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배 및 시가 수입에 관한 규정

FTA활용지원센터 이여람 관세사

2025년 7월 7일에 발행된 20/VBHN-BCT공문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의 다양한 회람과 통지문에 따른 담배 및 시가 수입 규제와 관련된 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다룹니다. 2013년부터 2025년까지의 주요 회람과 통지문을 기준으로, 관련 법률 및 상거래법에 대한 개정 및 보완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 피해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법률과 외국과의 상품 거래 규정에 대한 세부 사항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담배 및 시가 수입에 관한 규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적용대상

본 공문은 다음의 대상에 적용됩니다.

- 1) 본 공문은 담배와 시가의 수입을 규제합니다.
- 2) 본 공문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 면세점에서 판매하기 위해 담배 및 시가를 수입하는 경우
 - 나. 연구, 시험생산을 위한 샘플용 담배 및 시가의 수입과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를 위한 샘플용 담배 및 시가의 일시 수입 및 재수출, 정부가 정한 기준치 내에서 입국하는 개인의 담배 및 시가
 - 다. 일시 수입 재수출 활동, 일시 수출 및 재수입, 베트남 영토를 통한 경유 및 환적 사업
- 3) 본 공문은 담배와 시가를 수입하는 거래자, 담배와 시가 수입에 관련된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2. 담배 및 시가 목록

수출 식품 또는 수출 식품 생산 시설에 대한 인증서 발급 시 요청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와 시가’는 흡연을 목적으로 한 담배 제품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담배 성분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수입 담배 및 시가 목록은 다음을 말한다.

<공문20/VBHN-BCT 부록 I >

HS CODE			목록
2402			시가, 양끝이 잘린 시가, 작은 시가 및 담배, 담배잎 또는 담배잎 대체물로 만든 것
2402	10	00	시가, 양끝이 잘린 시가 및 작은 시가, 담배잎으로 만든 것
2402	20		담배잎으로 만든 담배
2402	20	10	비디(Beedies) 담배
2402	20	20	정향 성분이 포함된 담배
2402	20	90	기타
2402	90		기타
2402	90	10	담배잎 대체물로 만든 시가, 양끝이 잘린 시가 및 작은 시가
2402	90	20	담배잎 대체물로 만든 담배

3. 수입담배 및 시가에 대한 요건

수입담배 및 시가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담배와 시가는 베트남에서 상표 보호를 위해 등록해야 하며, 재무부 규정에 따라 수입 담배 스탬프를 부착해야 합니다.
- 국내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되는 담배 및 시가는 담배제품 구매 및 판매에 관한 현행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수입 담배 및 시가는 국내산 담배 및 시가와 동일하게 적합성 선언, 규정 적합성 또는 식품 안전 규정 적합성 선언에 대한 현행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담배의 위생 및 안전 품질 및 유해 물질 함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베트남에 처음 수입되는 담배 및 시가 브랜드는 수입 전, 지정된 기관에서 샘플을 분석하여 베트남 법률과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규정, 표준, 또는 식품 안전 요구 사항을 따릅니다.
- 수입 담배와 시가는 상품 라벨, 베트남에서 소비되는 담배 제품 라벨, 포장에 건강 경고문 인쇄 등에 대한 현행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수입절차

수입 절차를 진행할 때, 거래자는 세관 당국이 요구하는 서류 외에도 담배 및 시가 자동 수입 신청서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법규에 따른 확인서 또는 적합성 선언서 1부(사업자 도장 포함) 또는 식품 안전 적합성 선언서 1부(사업자 도장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본 통지문 제7조 제4항에 따른 수입품의 경우 추가로 샘플 분석 증명서 1부(사업자 도장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담배와 시가는 국제 국경 관문을 통해서만 베트남으로 수입될 수 있습니다.

5. 수입업자의 지정

산업통상부는 베트남 국립담배공사(VINATABA)를 국가 무역 메커니즘에 따른 담배 및 시가 수입업체로 지정하였습니다.

6. 자동허가제도에 따른 수입등록

산업통상부 장관은 담배 및 시가 자동 수입 신청서를 접수하고 평가하여 승인 또는 거부하는 권한을 해당 사업체 본사가 위치한 도(省) 인민위원회에 위임합니다. 수입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사업자는 담배 및 시가 수입을 자동으로 등록하기 위한 서류를 허가 기관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1) 담배 및 시가 자동 수입 신청서: 이 통지문과 함께 발행된 부록 II에 명시된 양식에 따라 2부
- 2) 수입 계약서: 1부 (거래자가 사본임을 날인한 것)
- 3) 상업 송장: 1부 (거래자가 사본임을 날인한 것)
- 4) 선적물의 운송장 또는 운송 서류: 1부 (상인이 원본과 동일한 사본이라는 도장을 찍은 것)

허가 기관은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허가 기관은 담배 및 시가 자동 수입 신청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유효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허가 기관은 거래자에게 서류 보충을 요청하거나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허가기관은 신청이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7. 보고제도

다음 분기의 첫 15일 이내에 담배 및 시가를 수입하는 거래자는 허가 기관에 전분기 담배 및 시가 자동 수입



상황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종류, 수량, 수입 금액, 판매 가격 및 향후 예상 수입 계획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본 통지서와 함께 발행된 부록 Ⅲ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매년 10월 15일 이전에 담배와 시가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허가 기관에 3분기 수입 상황 및 내년 수입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분기 보고서 대신)

담배 및 시가 수입에 대한 정기 보고 제도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서비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8. 결론

2025년 7월 7일자 20/VBHN-BCT 공문은 담배 및 시가 수입에 관한 법적 및 행정적 규제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주요 법률 및 규정을 개정하여 수입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담배 피해 예방과 국제 상거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수출입 업체는 최신 법령을 숙지하고,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북부 유망 투자지-라이쩌우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 면적 : 9,068.78 평방 킬로미터 - 인구 : 494,626명 / 도시 거주 비율 : 12%
지정학적 위치	- 자연 면적 : 9,068.78km²로 전국 34개 성·시 중 16위에 해당함 - 행정 구역 : 2개 동과 36개 읍으로 구성 - 라이쩌우(Lai Chau)는 베트남 북서부 지역과 중국 윈난성과 총 265.165km의 국경선을 접하고 있음. 주요 교통망은 사파(라오까이)와 디엔비엔푸 같은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고 있으며, 하노이-하이퐁-꽁닌 성장 삼각지대 및 다강(송다) 수로와도 연계되어 있음. 동쪽 및 동남쪽은 '사파(Sapa)'가 소재하고 있는 라오까이성과 접하고 있으며, 서쪽 및 서남쪽은 디엔비엔성과 썬라성과 접함
접근성	해당 지역에는 1개의 국경 경제구역이 있으며, 산업단지 1곳과 산업클러스터 3곳이 계획되어 있음. 현재 라이쩌우성과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총 연장 515.4km에 달하는 국도 7개 노선과 540.65km 규모의 지방도 10개 노선이 존재. 또한 총 연장 181km의 내륙 수로 노선 2개도 운영 중.
GRDP 성장률 / 1인당 GDP	'24년 GRDP 성장률 : 10.52 % '24년 1인당 GRDP : US 2,408달러
경제규모 산업별 성장률	- 지역내총생산(GRDP) : 약 US 97.9백만 달러 - 총수출액 : US 29.35 백만 달러
경제구조	- 제조업/건설업 : 38.78 % - 서비스업 : 14.63 % - 농림어업 : 39.98 %, - 생산물세 : 6.61 %
인적자원	- 경제활동 가능 인구 : 64.1 % - 훈련 노동자 비율 : 경제활동 인구의 60.4 %
최저임금	현재 라이쩌우의 지역별 최저임금은 2개 지역으로 나뉘져 있고, 가장 낮은 임금은 월 345만동(약 US 132.7달러/월) 또는 시간당 16,600동(약 US 0.64달러/시간)이고, 최고는 월 386만동(약 US 148.5달러/월) 또는 시간당 21,200동(약 US 0.72달러/시간)임.
외국인투자 (‘24.12월 기준)	- 총 외국인투자 : 1개 프로젝트, 총금액 : US 150만 달러 - 한국 투자 : 0개 프로젝트

투자환경



라이쩌우성의 위치

➤ 교통시스템

- ✓ 라이쩌우성과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 국도 7개 노선, 지방도 10개 노선이 있음
- ✓ 총 연장 181km의 내륙 수로 2개 노선이 있음

➤ 관광 및 자연자원

- ✓ 관광 잠재력이 풍부하고 다양한 형태로 매력적임
- ✓ 험준한 산악 지형을 활용한 모험 산악관광, 원시 자연탐험
- ✓ 베트남에서 가장 웅장한 10대 산 중 6개를 보유
- ✓ 신비로운 동굴, 웅장한 폭포 등 다양한 자연 명소
- ✓ 20개의 소수민족이 공존하며, 독특하고 가치 있는 유형·무형 문화유산 다수 보유
- ✓ 커뮤니티 기반 관광마을 다수 운영

➤ 수자원

- ✓ 관광 잠재력이 풍부하고 라이쩌우성은 화빈성과 함께 베트남 내 수력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두 개 성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음.
- ✓ 현재까지 총 설비용량 3,096.85MW 규모의 수력발전소 61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18개 발전소는 이미 완공되어 총 2,100MW 이상의 발전용량을 확보하고 있음.



오꾸이호(O Quy Ho) 고개



므엉탄(Muong Than) 평야

➤ 토지 자원

- ✓ 총 자연면적 : 9,068.78km²
 - 농업용지 : 5,265.33km²
 - 비농업용지 : 336.8km²
 - 미이용지 : 3,466.7km²
- ✓ 광물 자원 (전 성에서 169개 광산 및 광물 분포 지점 확인)
 - 연료 자원 : 석탄 4개 지점
 - 금속 자원 : 철 5곳, 구리 14곳, 납-아연 10곳, 금 53곳, 몰리브덴 4곳, 주석 1곳, 방사성 원소(U-Th) 7곳, 희토류 3
 - 비금속 자원 : 보석/준보석 4곳, 황철석(pyrit) 10곳, 고령토(kaolin) 3곳
 - 화학 원료 : 3곳
 - 건축 자재용 자원 : 장식석 10곳, 시멘트용 석회석 4곳, 슬레이트 4곳, 일반 석회석 2곳, 벽돌용 점토 4곳, 자갈·모래 3곳
 - 온천 및 광천수 자원 : 21개 지점

경제개발 현황 및 발전 방향

- ✓ 라이쩌우성은 2030년까지의 발전방향과 2050년까지의 비전에서 '마루탕(Ma Lu Thang) 국제국경관문'을 도(道) 차원의 발전뿐만 아니라 북서부 소지역 전체의 경제 성장을 연결하는 주요 동력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통 인프라, 상업 기반, 산업단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 또한, '마루탕 국제국경관문'과 북서부 지역의 주요 농업·산업 생산지 및 관광 중심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루탕을 중국으로 향하는 농산물의 중계·수출 허브로, 동시에 중국 관광객 유입을 위한 주요 입국 지점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

➤ 산업단지 현황

주요 산업단지 정보

산업단지명	설립연도	면적 (ha)	주요 정보
므엉소(Muong So) 산업단지	2009	198	- 입주율: 약 20% - 임대료 및 비용: 2017년 4월 3일 정부령 제35/2017/NĐ-CP호 제8조 제6항 b, c, d호 규정에 따름 - 유치 산업: 농림산물 가공, 광물 가공, 소규모 기계, 건축자재 생산
탄우옌(Than Uyen) 산업클러스터	2009	50	- 입주율: 0% - 임대료 및 비용: 정부령 제35/2017/NĐ-CP 규정에 따름 - 유치 산업: 농림·수산물 가공, 수공업, 건축자재, 광물 가공, 비료 생산 등
떤우옌(Tan Uyen) 산업클러스터	2011	50	- 입주율: 0% - 임대료 및 비용: 정부령 제35/2017/NĐ-CP 규정에 따름 - 유치 산업: 농림·수산물 가공, 소규모 기계 수리, 건축자재, 수공업, 비료 생산
남눈(Nam Nhun) 산업클러스터	-	17.9	- 입주율: 0% - 임대료 및 비용: 정부령 제35/2017/NĐ-CP 규정에 따름 - 유치 산업: 농림·수산물 가공, 건축자재 생산, 수공업, 소규모 기계 등

➤ 투자 관련 정책 및 제도적 근거

✓ 중앙정부의 우대 정책

- 2018년 5월 7일 재정부 통합문서 제09/VBHN-BTC호: 법인세법의 세부 규정 및 시행 지침에 관한 내용
- 2016년 9월 1일 정부령 제134/2016/NĐ-CP호: 수출입세법 시행을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 규정
- 2018년 1월 23일 정부령 제14/NĐ-CP호: 국경 무역 활동에 대한 세부 규정
- 2017년 4월 3일 정부령 제35/2017/NĐ-CP호: 경제구역 및 첨단기술단지 내의 토지 사용료, 임대료, 수면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 2022년 5월 28일 정부령 제35/2022/NĐ-CP호: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 관리에 대한 규정

✓ 라이퍼우성의 우대 정책

- 2019년 7월 23일 라이퍼우성 인민위원회 결의 제09/2019/NQ-HĐND호: 기술 이전, 응용, 기술혁신 및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정책

- 2019년 7월 23일 결의 제12/2019/NQ-HĐND호: 농업 및 농촌 분야에 대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특수 우대 정책
- 2019년 7월 23일 결의 제13/2019/NQ-HĐND호: 농업 생산 연계에 대한 지원 정책
- 2019년 12월 11일 결의 제38/2019/NQ-HĐND호: 2020~2025년 및 2030년까지의 비전으로 특정 약용식물 재배 개발을 위한 계획 승인
- 2021년 3월 22일 결의 제07/2021/NQ-HĐND호: 2021~2025년 집중형 상품 농업 개발 정책에 대한 규정
- 2021년 3월 22일 결의 제08/2021/NQ-HĐND호: 2021~2025년 지속가능한 산림 개발 정책에 대한 규정

➤ 투자 인센티브

항목	투자 지역 / 대상지	법인세 / 수입관세 / 토지세
산업단지	▪ 므엥소산업단지 ▪ (면적: 198ha, 풍토읍 소재) ▪ 띠엔우엔산업클러스터 ▪ (면적: 50ha, 띠엔우엔읍 소재) ▪ 탄우엔산업클러스터 ▪ (면적: 50ha, 므엥탄읍 소재) ▪ 남눈산업클러스터 ▪ (면적: 약 17.9ha, 남향읍 소재)	▪ 법인세: 2018년 5월 7일 재정부통합문서 제09/VBHN-BTC호에 따른 법인세법시행령중, 제15조 1항a호 및 제16조 1항b호에 규정되어 있음. ▪ 수입관세: 2016년 9월 1일 정부령 제134/2016/NĐ-CP호, 제14조 1항 및 제1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음. ▪ 토지세: 2017년 4월 3일 정부령 제35/2017/NĐ-CP호, 제8조 6항b, c, d호에 따라 경제구역 및 첨단기술단지 내 토지 사용료 및 임대료 부과 규정이 있음. ▪ 경제구역에 대한 투자 우대: 2022년 5월 28일 정부령 제35/2022/NĐ-CP호 제22조 4, 5, 6항 및 제23조 1항에 따라 산업단지 및 경제구역에 대한 우대 규정이 있음.

➤ 외국인 투자 현황

- ✓ 외국인 투자는 2024년 12월 기준 누계 총 투자액 : US150만 달러, 총 프로젝트: 1건
- ✓ 슬레이트 채굴 프로젝트
 - 투자자: 라이퍼우 슬레이트 합작회사
 - 베트남 측: 라이퍼우성 관리 하의 제1건축자재회사
 - 외국 측: Workington Enterprises Limited (홍콩 소재)
- ✓ 투자 허가서:
 - 최초 허가: 제1891/GP호 (1997년 4월 25일)
 - 1차 조정: 제1891/GPĐC1호 (1997년 5월 28일)
 - 2차 조정: 제1891/GPĐC2호 (2005년 3월 14일)

- ✓ 프로젝트 기간: 1997년부터 2027년까지
- ✓ 위치: 라이쩌우성 남눈현 핫쑼(Hat Sum) 광산 지역
- ✓ 총 등록 투자자본: US 150만 달러, 그중 법정자본금: US 50만 달러
- ✓ 현재까지 한국 기업의 투자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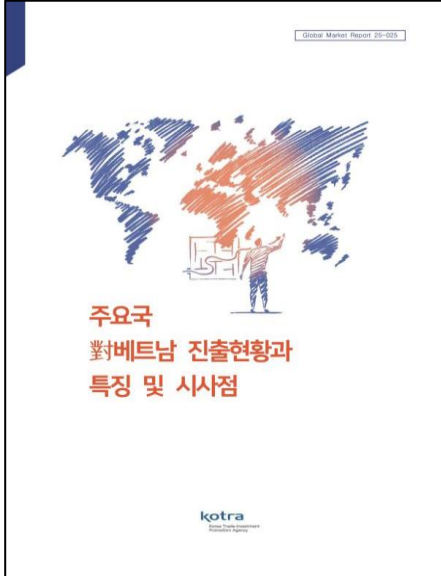
투자 유망분야

➤ 업종/분야

✓ 가공 산업	✓ 교육
✓ 첨단기술 적용 농림업	✓ 관광

투자유치기관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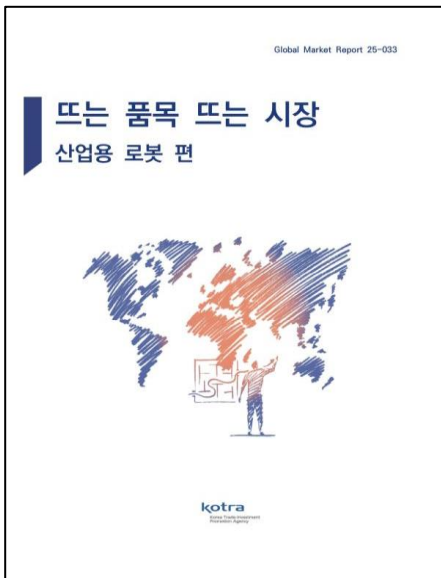
기관명	담당자	주소
투자유치 촉진 및 금융서비스 자문센터	Mrs. Nguyen Thi Duyen/ 센터장	Tel : +84-21-3379-9919 Email : ttxttdt-tvdvtc.sotc@laichau.gov.vn Website : https://sotaichinh.laichau.gov.vn/



주요국 對베트남 진출 현황과 특징 및 시사점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베트남 경제 및 외교정책 개관
2. 베트남의 교역·투자 현황
3. 주요국별 對베트남 진출현황 및 특징
4. 요약 및 시사점



뜨는 품목 뜨는 시장 : 산업용 로봇 편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산업용 로봇 수출 동향
2. 주요 시장 현황
3. 뜨는 시장 제언

2025 베트남 빈증 스마트공장 자동화 산업 전시회

전시회명	2025 베트남 빈증 스마트공장 자동화 산업 전시회 [AW Vietnam]
개요	- 한국 코엑스 대표 스마트팩토리 및 공장자동화 전시회인 Automation World의 프랜차이즈 전시회로 2024년 베트남 첫 런칭 - 공장자동화 및 스마트팩토리 관련 기자재, 솔루션 등 전시 - 베트남 신흥 산업도시 빈증성 개최 1:1 수출 상담회 동시 진행
개최기간	2025.08.27 - 2025.08.29
개최장소	WTC Binh Duong
개최규모	6000sqm(m ²)
웹사이트	https://automationworld.net.vn
산업분야	기계&장비
전시품목	센서, PLC, DCS, 모션컨트롤, 산업용 PC, 드라이브, FA 시스템, 자동화부품, 산업용 카메라, 렌즈 및 조명,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디지털팩토리,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공장솔루션, PLM, MES, ERP, 스마트센서, 산업용 로봇, IIoT, 스마트물류, AGV/AMR, 자동창고시스템, 피킹시스템, 지게차, 컨베이어, 물류솔루션 외 다수등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5. 6.30 기준 누계		2025. 1. 1 ~ 6.3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10,203	93,732.03	206	232.78	3,081.88
싱가포르	4,160	86,456.46	273	2,405.73	6,121.69
일 본	5,603	79,477.53	146	832.26	1,821.03
대 만	3,347	42,055.16	97	725.83	1,084.17
홍 콩	3,023	39,648.60	239	691.92	1,816.71
중 국	5,683	33,147.88	600	2,130.80	1,414.05
버진아일랜드(영)	946	24,374.52	25	317.02	800.38
네덜란드	465	15,030.20	12	55.70	141.57
태국	771	14,924.10	19	59.44	869.65
말레이시아	775	14,583.54	23	8.14	1,590.39
미국	1,469	11,989.07	64	183.34	249.99
기 타	7,222	64,121.20	284	1,648.03	2,981.87
전체 합계	43,702	519,545.53	1,988	9,291.00	21,519.66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5. 6. 30 기준 누계		2025. 1. 1 ~ 6.3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8,539	317,805.27	759	5,058.89	11,973.51
2	부동산 경영	1,274	78,059.79	60	2,245.60	5,165.31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99	42,095.02	1	116.20	194.24
4	호텔, 외식서비스	1,036	14,194.33	38	159.31	436.08
5	건설	1,861	10,910.53	27	8.19	189.85
6	도소매, 유지보수	8,649	12,531.50	645	285.55	753.64
7	물류운수	1,257	7,187.42	65	86.13	136.79
8	과학기술, 전문활동	4,980	6,331.60	221	202.62	1,177.27
9	정보통신	3,186	5,166.82	104	13.72	24.44
10	채광	107	4,870.39	-	-	0.65
11	교육, 양성	705	4,698.10	14	1.07	89.58
12	농,임,수산	537	3,861.24	3	27.10	27.10
13	예술 오락	151	3,169.30	1	0.16	1.30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87	3,708.25	6	1,075.04	902.85
15	의료와 사회복지	156	1,842.98	-	-	161.72
16	행정, 지원 서비스	707	1,230.16	37	21.08	120.21
17	금융, 은행, 보험	102	933.29	2	2.60	148.57
18	기타 서비스	163	938.91	5	3.83	16.55
19	가구내 고용활동	6	10.64	-	-	-
	합 계	43,702	519,545.53	1,988	9,291.00	21,519.66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증감율%)

구 분	2022	2023	2024	2025.6
수 출	3,713	3,546	4,055	2,198(+14.5)
수 입	3,589	3,263	3,807	2,122(+17.9)
무역수지	124	280	247	76.6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2	2023	2024	2025.6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7,994	52,379	53,891	26,894(-0.9)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55,536	57,336	72,584	47,688(+40.0)
기계/플랜트 및 부품	45,751	43,128	52,191	26,881(+15.4)
섬유/직물제품	37,566	33,329	37,036	18,668(+12.3)
신발류	23,895	20,237	22,871	11,888(+10.1)
원목 및 목제품	16,011	13,467	16,282	8,165(+8.4)
철강제품	7,993	3,973	4,594	2,811(+31.6)
수송수단 및 부품	11,988	14,157	15,066	8,223(+12.8)
수산물	10,923	8,971	10,040	5,113(+15.9)
원사(Yarn)	4,713	4,355	4,407	2,080(-4.0)
기 타	98,934	103,339	116,569	61,450
합 계	371,304	354,671	405,531	219,861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 목 명`	2022	2023	2024	2025.6
전자제품 및 컴퓨터	81,884	87,965	107,053	67,900(+37.2)
기계/플랜트 및 부품	45,192	41,579	48,887	27,989(+24.4)
각종 전화기 및 부품	21,126	8,749	10,403	4,954(+9.8)
의류(원단)	14,706	13,016	14,905	7,541(+3.5)
플라스틱 원료	12,387	9,755	11,780	6,236(+12.8)
각종 철강	11,920	10,425	12,583	5,379(-9.9)
기타 비금속	9,253	7,626	9,554	3,672(+20.4)
플라스틱 제품	8,119	7,508	8,853	4,959(+19.6)
화학제품	9,144	7,605	7,735	3,799(+1.1)
화학물질	8,747	7,726	8,286	3,918(-6.3)
기 타	136,423	124,419	140,724	75,849
합 계	358,901	326,373	380,763	212,196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1	2022	2023	2024	2025.6
1	미 국	96,293	109,388	97,020	119,501	70,913
2	중 국	56,009	57,702	61,207	61,211	29,121
3	한 국	21,945	24,293	23,498	25,619	13,736
4	일 본	20,128	24,232	23,314	24,608	12,806
5	홍 콩	11,996	10,936	9,631	12,423	7,657
6	네덜란드	7,686	10,430	10,241	12,993	6,257
7	독 일	7,286	8,968	7,400	7,934	4,752
8	인 도	6,259	7,961	8,498	9,064	5,043
9	태 국	6,161	7,476	7,192	7,782	4,157
10	영 국	5,765	6,065	6,345	7,543	3,874
	기 타	96,782	103,853	100,325	116,853	61,545
	합 계	336,310	371,304	354,671	405,531	219,861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1	2022	2023	2024	2025.6
1	중 국	109,874	117,866	110,644	114,020	84,699
2	한 국	56,155	62,088	52,511	55,925	28,357
3	대 만	20,772	22,631	18,421	22,741	14,774
4	일 본	22,648	23,373	21,638	21,588	11,591
5	미 국	15,270	14,470	13,822	15,102	8,869
6	태 국	12,564	14,092	11,797	12,447	6,315
7	오스트레일리아	7,946	10,144	8,533	7,592	3,634
8	말레이시아	8,148	9,124	7,809	9,133	5,211
9	인도네시아	7,587	9,641	8,728	10,527	5,755
10	인 도	6,950	7,086	5,864	5,829	2,851
	기 타	64,320	68,386	66,606	105,859	40,140
	합 계	332,234	358,901	326,373	380,763	212,196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6
수출	56,729(+16.9)	60,972(+7.5)	53,479(-12.3)	58,321(+9.1)	29,134(+4.0)
수입	23,965(+16.5)	26,726(+11.5)	25,941(-2.9)	28,440(+9.6)	14,830(+9.2)
무역수지	32,763	34,246	27,550	29,880	14,304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	2025.6
반도체	14,026(22)	16,240(15.8)	12,729(-21.6)	18,039(+41.7)	11,348(+38.0)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2,050(26.1)	12,527(4.0)	12,350(-1.4)	11,227(-9.1)	4,206(-18.3)
석유제품	1,157(-3.2)	3,733(222.3)	3,327(-10.8)	2,731(-17.7)	1,065(-31.0)
무선통신기기	3,315(-4.2)	2,358(-29.2)	2,166(-8.1)	2,511(+15.9)	1,152(-6.4)
합성수지	2,415(49.5)	2,581(6.9)	2,001(-22.5)	2,333(+16.8)	1,071(-7.5)
기구 부품	2,405(7.3)	2,194(-8.8)	1,861(-15.1)	1,772(-4.8)	861(-4.1)
플라스틱 제품	1,174(5.3)	1,067(-9.2)	1,021(-4.2)	1,055(+3.4)	516(-5.3)
철강판	1,267(20.4)	1,069(-15.6)	887(-17.0)	994(+12.0)	483(+17.7)
기타기계류	957(43.0)	793(-17.1)	801(+1.0)	664(-17.0)	325(-16.3)
계측제어분석기	717(4.5)	815(13.6)	734(-9.9)	593(-19.1)	288(+0.4)
기타	17,039	17,242	15,612	16,402	7,819
합계	56,729(16.9)	60,972(7.5)	53,489(-12.3)	58,321(+9.1)	29,134(+4.0)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	2025.6
무선통신기기	5,579(12)	5,986(7.3)	4,543(-24.1)	4,678(+3.0)	2,222(-6.0)
의류	3,393(7.9)	3,840(13.2)	3,542(-7.7)	3,593(+1.4)	1,574(-0.2)
컴퓨터	1,659(30.6)	1,948(19.1)	2,075(+6.6)	2,383(+14.9)	1,385(+14.0)
반도체	750(33.8)	787(5.0)	2,053(+160.9)	2,976(+45.0)	2,093(+64.9)
산업용 전기기기	725(26.2)	970(33.8)	1,396(+44.0)	1,699(+21.7)	945(+16.3)
신변잡화	984(-4.4)	1,250(27.2)	1,252(+0.1)	1,221(-2.5)	605(+0.2)
목재류	755(19.5)	942(24.8)	722(-23.3)	681(-5.7)	316(-7.4)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76(-14.7)	783(-10.5)	657(-15.9)	598(-9.1)	324(+16.4)
기구부품	624(29.6)	654(4.8)	571(-12.7)	654(-14.6)	338(+19.7)
영상기기	426(8.9)	441(3.6)	409(-7.2)	414(+1.2)	197(-1.5)
기타	8,161	9,103	8,718	9,543	4,831
합계	23,966(16.5)	26,726(11.5)	25,938(-2.9)	28,440(+9.6)	14,830(+9.2)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4~2025년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시 기	단위	국 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GDP증가율		2024년(연간)	%	7.09	5.03	4.4	5.1	2.5	5.6
		2024년 4Q	%	7.55	5.02	4.3	5	N/A	5.2
		2025년 1Q	%	6.93	4.87	3.8	4.4	N/A	5.4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4년(연간)	-	N/A	N/A	124.9	133.1	96.57	N/A
		2025년 4월	-	N/A	N/A	124.2	127.1	92.07	N/A
		2025년 5월	-	N/A	N/A	119.8	N/A	100.79	N/A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4년(연간)	-	N/A	N/A	N/A	49.35	49.88	N/A
		2025년 4월	-	45.6	46.7	49.6	48.6	49.5	N/A
		2025년 5월	-	49.8	47.4	49.7	48.8	51.2	50/1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4년(연간)	-	N/A	N/A	N/A	N/A	N/A	N/A
		2025년 4월	-	N/A	121.7	N/A	N/A	N/A	N/A
		2025년 5월	-	N/A	117.5	N/A	N/A	N/A	N/A
	소매판매	2024년(연간)	-	9	N/A	N/A	N/A	N/A	1.8
		2025년 4월	-	11.1	△2.2	N/A	N/A	N/A	0.9
		2025년 5월	-	10.2	1.9	N/A	N/A	N/A	0.8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4년(연간)	%	3.63	N/A	2.4	1.8	N/A	3.2
		2025년 4월	%	3.12	1.95	0.7	1.4	N/A	1.4
		2025년 5월	%	3.24	1.60	0.6	N/A	N/A	1.3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4년(연간)	%	N/A	N/A	N/A	N/A	N/A	N/A
		2025년 4월	%	N/A	N/A	N/A	N/A	N/A	N/A
		2025년 5월	%	N/A	N/A	N/A	N/A	N/A	N/A
고용	실업률	2024년(연간)	%	2.24	N/A	2	3.3	1	3.8
		2024년 4Q	%	2.22	N/A	2.1	3.2	0.89	3.4
		2025년 1Q	%	2.2	N/A	2	3.2	0.89	4
무역	수출증가율	2024년(연간)	%	14.3	2.28	N/A	9.4	5.42	△0.6
		2025년 4월	%	19.8	5.76	22.1	16.4	10.18	7.6
		2025년 5월	%	17.0	9.68	2.5	△1.1	18.35	15.1
	수입증가율	2024년(연간)	%	16.7	5.31	N/A	5.6	6.34	1.4
		2025년 4월	%	22.9	21.84	7	20	16.09	△2.5
		2025년 5월	%	14.1	4.14	△0.5	6.6	17.95	△4.4

[자료원]

-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MIER, S&P
 - (태국) 산업경제실(OIE), 태국중앙은행(BOT),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UTCC), 태국상무부(MOC), 태국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 전망치는 *표시

2025년 베트남 투자사절단 모집

☑ 행사개요

- ◎ 일시 : 2025. 9. 8(월) – 9.9(화)
- ◎ 장소 : 하노이 & 베트남 북부 산업단지
- ◎ 주최 : KOTRA, 베트남 무역진흥청(VIETRADE), 주한 베트남 대사관
- ◎ 참가자 : 베트남 투자진출 희망 한국기업 10개사 내외
- ◎ 주요내용 : 한-베 투자협력세미나, 베트남 주요 산업단지 매칭 및 면담,
베트남 북부 산업단지 현장 시찰, 지방 정부 방문 및 투자상담



☑ 프로그램

날짜	주요 일정
Day 0 (9.7-일)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 도착
Day 1 (9.8-월)	오전: 한-베 투자 및 무역 협력 세미나*
	오후: 베트남 주요 산업단지 상담* (필요시 산업단지 방문 포함)
Day 2 (9.9-화)	오전: 유치 희망 주요 산업단지 현장 방문*
	오후: 초청 지방정부 회의 및 관내 산업단지 시찰*
	저녁: 환송 만찬 후 한국 귀국 (기업별 개별 일정 추가 가능)

*한-베 순차통역으로 진행

☑ 참가비용

- ◎ 항공권, 숙박 등 제반 비용은 참가자 본인 부담.
- ◎ 교통 및 통역 서비스는 KOTRA에서 제공.
- ◎ 세미나 장소 제공 및 지방성과의 연결은 VIETRADE에서 담당.
- ◎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베트남 현지 동행 및 지원 예정.

※ 참가신청 링크: <https://forms.gle/gzwrKZyjejQucsHg7>

※ 신청 마감일: 2025년 8월 9일(금)

* 신청 마감일까지 참가 신청 5개사 미달시 행사가 연기 될 수도 있음

※ 문의처:

◎ KOTRA: 02-3460-3247/ E-mail: bokkotra@kotra.or.kr

◎ 주한 베트남 대사관: 010-8712-8689/ E-mail: tiendt@naver.com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VIETNAM TRADE PROMOTION AGENCY**

**INVESTMENT PROMOTION CONFERENCE
IN THE SUPPORTING INDUSTRY**

Time: 08:30 – 13:30, Tuesday, 05th August 2025

Location: Pullman Hanoi Hotel, 61 Giang Vo Str., District Dong Da, Hanoi

Time	Content	Speaker
08:30	Delegates Registration	
09:00 – 09:10	Welcome speech	Representative of Vietnam Trade Promotion Agency (VIETRAD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09:10 – 09:30	Overview of support policies and investment trends in Vietnam's supporting industry	Representative of the Foreign Investment Agency (FIA), Ministry of Finance
09:30 – 09:50	Introduction to new policies, guidelines, and regulations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supporting industries in Vietnam	Representative of the Vietnam Industry Agency (VIA),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09:50 – 10:10	Current status of investment in Vietnam's supporting industries and Trends in expanding local supply chains, sourcing raw materials and components from Vietnamese enterprises	Representative of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JETRO) in Hanoi
10:10 – 10:20	Tea-break	
10:20 – 10:40	Key concerns of foreign investors in Vietnam's supporting industry and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capabilities of domestic enterprises to join the global supporting industry supply chain	Representative of FDI Enterprise (Onaga)
10:40 – 11:00	Current status and strategic recommendations for adjusting production and export markets to adapt to changes in the global supporting industry supply chain	Representative of Vietnam Association of Supporting Industries (VASI)
11:00 – 11:20	Policies and support measures for enterprises investing in supporting industries at the Vietnamese provinces	Representative of the Vietnamese local government
11:20 – 11:40	Transitioning to Next-Generation Industrial Parks: Green solutions for supporting industry enterprises	Representative of Deep C Industrial Park
11:40 – 12:00	Discussion	
12:00 – 13:30	Networking Luncheon	

*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 Vietnamese - English

ORGANIZING COMMITTEE

- Vietnam Trade Promotion Agency,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f Vietnam (VIETRADE)
- Vietnam Industry Agency,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f Vietnam (VIA)
- Foreign Investment Agency (FIA), Ministry of Finance
- Vietnamese local government
- Associations
- Enterprises and Industrial Parks

VIETRADE cordially invites interested enterprises to register here:

<https://forms.gle/1CvKGCWzeGADW47J6>

전기전자산업 정책간담회

- ❖ 일 시 : 25.8.14 (목), 09:00~13:00(베트남시간)
- ❖ 장 소 : VIETRADE 빌딩 5 층, 하노이 (온라인 동시 진행: Zoom)
- ❖ 주 최 : KOTRA(베트남 코리아 데스크), VIETRADE (무역진흥청)
- ❖ 등록링크 : <https://forms.gle/MBWAu7um9gEA7cbB8>

프로그램

시간	내용	연사
09:00 – 09:30	참가자 등록 및 행사소개	
09:30 – 09:45	개회사	Mr. Vu Ba Phu 베트남 무역진흥청장
	환영사	구본경 본부장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09:45 – 10:05	베트남전기전자산업 개발 정책	산업청 대표
10:05 – 10:25	전기전자 밸류체인 맵 소개	복덕규 팀장 코리아 데스크
10:25 – 10:35	커피 브레이크	
10:35 – 10:55	양국기업간 협력방안 및 제안	베트남의 선도적 기업 및 협회
10:55 – 11:15	전기전자산업 발전 정책 제언	한국 기업/한국 협회
11:15 – 11:40	정책제안 및 Q&A	참가자 전원
12:00 – 13:30	네트워킹 오찬	

* 한베 동시통역 제공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KOTRA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 +84 24-3946-0511 ✉ seyeonjang@kotra.or.kr <저작권자©KOTRA >